韓國大學의 現在와 未來

高麗大 總長 金 熙 執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大學들은 과도한 社會的 役割을 수행해 오면서 스스로를 돌볼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조국의 近代化에 있어 가장 중요한 人的·知的 공급원의 역할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跛行的 政治現實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抗拒의 震源地가 되었다. 특히 정치사회 현실을 改革하는 데 소모한 대학의 에너지는 너무나 과도하여 지난 '70년대와 '80년대의 대학은 獨裁打倒와 民主改革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본연의 모습이 크게 훼손 당하였다. 다시 말해 그동안 우리 대학들은 부정적 정치 권력에 抗拒하여 民主社會를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寄與를 한 대신, 眞理探究와 대학 발전에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여 그 內實이 허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 大學들은 규모의 增大에 걸맞는 內實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아울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앞서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학은 현실에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만, 동시에 未來를 대비하기도 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대학은 未來의 사회를 만들어 내는 곳이기도 하다. 대학에서 指向된 理想과 대학에서 育成된 人才, 그리고 대학에서 探究된 眞理로 未來의 사회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학이 現實에 많은 관여를 하면서 동시에 현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도 대학이 未來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變化·發展하고 있다. 이 변화·발전을 능동적으로 受容하고 나아가 그것의 先頭에 서서 未來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제 대학은 그 內實을 鞏固히 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대학인들은 그동안 학교 밖으로 消盡했던 에너지를 敎育과 硏究에 投入해야 할 것이며, 사회는 대학의 長期的인 발전에 과감한 投資를 해야 할 것이고, 文敎行政當局은 대학의 自律的인 자기 발전 노력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90년대의 우리 대학들이 그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되찾기 위한 기본적인 前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前提 아래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이 指向해야 할 발전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각 대학들이 갖는 特性에 따라 달리 設定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은 일반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첫째, 大學行政制度의 先進化이다. 그동안 대학의 行政은 制度와 組織의 힘으로 유지되었다기보다는 대학인의 良識과 慣例에 의존하여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대학의 규모가 작고 社會構造가 비교적 단순할 경우에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社會構造가 복잡하며 그 변화 속도가 빠를 경우 그 방식은 管理能力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몇 년 간 우리 대학들이 政治民主化와 大學民主化의 열기 속에 휩싸였을 때, 대학의 자체 管理能力이 다소 위협스러웠던 사례들도 어떤 면에서는 大學行政制度의 落後性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大學行政도 制度와 組織에 의존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大學行政의 先進化를 위한 많은 연구와 실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學問의 國際化와 世界化이다. 교통 수단과 정보·통신 수단의 혁명으로 세계는 이미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며, 다른 分野와 마찬가지로 학문도 적극적인 國際交流가 없이는 先進隊列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의 理論이나 學說이 가지는 라이프 싸이클이 매우 짧고, 새로운 이론이 무수히 쏟아지는 현대 학문의 세계에서 學術情報의 신속한 入手와 受容, 그리고 交流는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國際學術交流의 場에서의 소외는 곧 학문의 침체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대학들은 학문의 國際化를 위하여 진취적인 認識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自然科學의 先進化이다.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動力이 되는 것은 自然科學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自然科學은 학문의 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自然科學의 先進化 없이는 대학의 先進化도, 나라의 先進化도 점점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들은 自然科學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특히 基礎科學과 尖端科學分野의 발전에 心血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대학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權威와 機能性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과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方向性을 모색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며 邁進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는 우리나라 大學史에서 跳躍의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